

젊은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 전라북도 진안의 마을간사 사례를 중심으로

진양명숙(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 수료)

<목 차>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 지역 및 연구 대상의 이해
3.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동기 및 정착의 양상
 - 1) 이주와 정착의 동기; '가치지향적 삶을 향해'
 - 2) 생태 가치의 담지와 실천; '모나지 않고 농글게'
 - 3) 적응과 정착을 향한 분투;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
4. 귀농자, '농사꾼에서 농촌의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5. 연구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 연구 목적 및 방법

오늘날 모든 농촌이 도시를 향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도농교류이다. 도농교류는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92).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지역 활성화는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지자체는 도농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민이 잠깐 농촌에 와서 머무르다 가는 형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민을 농촌에 정착하게 하려는, 이른바 ‘귀농귀촌’ 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농교류나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 도시민을 향한 농촌 지자체의 정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농촌에 시선을 둔 도시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시적인 방문이나 체류 형태에서 삶의 터전을 아예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거나, 옮기려는 귀농자와 귀농예정자가 늘어나고 있다.¹⁾

귀농이 급속도로 증가한 IMF 직후부터 귀농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귀농에 관한 연구는 귀농 실태와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서규선·박덕병, 1997; 권승구, 1998; 박영일, 1998; 김동근, 1998; 배성의 외, 1998; 김형용, 1998; 나장백, 1998; 구분석, 1999; 김주현, 1999; 농림부, 2000). 그리고 점차 귀농자들 간의 ‘차이’에 주목해, 그 차이가 곧 귀농 후 적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다(임혜영, 1999; 정한도, 2002; 박공주, 2005; 강대구, 2006-2007).

이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에 토대를 둔 양적 연구는 귀농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지만, 귀농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1) 귀농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2,703명이 농촌으로 귀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IMF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2002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농림부, 2004).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5년과 2007년 <농촌정주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농촌체험관광 경험을 한 도시민이 2005년 29.4%에서 2007년에는 37.6%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56.1%가, 2007년에는 56.3%가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도시민 두 명 중 한 명이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61).

듣기에는 한계가 크다. 그래서 필자는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촌 이주의 동기, 농촌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일상의 경험, 귀농자들의 생각과 인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곧 이 연구는 누가, 왜 귀농하는지, 농촌에서의 정착 과정은 어떠한지를 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북 진안으로 이주한 20명의 귀농자를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²⁾ 필자는 이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진양명숙, 2008). 그런데, 전북 진안을 사례로 연구하면서, 현재 농촌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진안의 ‘마을간사제도’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1회 ‘진안군 마을축제’³⁾ 현장 곳곳에서 필자는 마을간사들의 두드러진 활약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각종 학습교류회 발표자로 참여하거나, 마을만들기 답사 및 귀농귀촌 답사의 가이드를 맡거나, 귀농귀촌인 한마당을 조직하거나 하면서, 이번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진안의 마을간사들은 모두 도시에서 이주한 이들로, 대학을 졸업했고, 평균연령은 40세 정도 된다. 필자는 마을간사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의 농촌 이주의 배경과 정착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 현상의 단면을 살펴보는 데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둘러싼 인식과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여 오늘날 귀농의 양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의 사례는 마을간사들이 주이지만, 본 연구는 마을간사제도를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그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자, 귀촌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통해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심층 면접과 참여관찰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2008년 초 실시한 20명의 귀농·귀촌자들과의 심층 면접 자료를 기초로 다시 8월에 네 명을 더 만났다. 본 조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마을간사는 모두 7명이나, 본문에 사례로 언급된 마을간사는 모두 11명이다. <2006, 2007 마을간사 연합활동 보고서>에서 심층면접을 하지 않은 간사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도 이 글에 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귀농·귀촌자와의 심층 면접 자료도 활용하였다. 이는 2008년 초 20명의 귀농귀촌인과 심층면접을 하고 난 후 얻어진 자료이다. 그리고 2004년에 진안군에 전임 계약직으로 공식 채용되어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도 몇 차례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이름은 물론 모두 가명이다. 또한 진안의 귀농귀촌인 모임과 마을축제에의 참여관찰 자료, 진안군 내부 자료와 진안에서 발간한 문서 자료도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진안군에서 얻은 1차 문서의 유형은 공문 형태에서부터 각종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2. 연구 지역 및 연구 대상의 이해

2) (사)호남사회연구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필자는 이 용역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200여 명의 귀농귀촌인 중 20명을 다시 선정해 한 차례의 면접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2008년 5월 한국지역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귀농의 성격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다.

3) 제1회 진안군 마을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귀농귀촌축제, 부대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만들기전국대회는 올해 3회를 맞는 행사이다. 다양한 주제의 분과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이 학술행사는 NGO 활동가, 마을지도자, 공무원, 전문가 등이 그 참여대상이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축제는 진안 20개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마을에서 여무나기를 원하는 도시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골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안은 전라북도 동부에 위치한 산간 고원 지대로, 명산으로는 마이산이 있다. 임야가 79.3%인데 반해 농경지는 13.2%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으로 군의 전체 인구는 23,915명이다. 용담댐 건설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이 29.2%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진안도 여느 농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과소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진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착수한다(진안군 내부자료).

진안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의 흐름에 놓여 있다. 한국의 농촌정책은 1950년대 후반의 ‘지역사회개발사업’, 1960년대의 ‘시범농촌건설사업’,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 1980년대의 ‘농촌종합개발사업’, 1990년대 ‘면단위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어진다. 각 시기마다 정책 사례와 정책의 기조는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농촌공간의 물리적 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지역의 개성과 창의, 주민의 참여, 소프트웨어 등의 빈곤을 가져왔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농촌다움이나 농촌이 갖는 다면적 가치가 강조되며, 농촌의 물리적 개발 이외에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등장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9-11). 특히 마을단위의 사업을 지방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전략이 강조되면서, 농촌 사회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되, 마을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사업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어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등이 그 예이다(송미령, 성주인, 2004: 19-20). 2000년대는 도농교류, 농촌관광, 도시민 농촌유치 등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 지역의 역량과 책임 강화,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 강조와 참여자의 외연 확대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이 농촌정책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11).

정부의 이러한 농촌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진안은 2001년 독자적으로 읍면지역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인 경제학 박사를 채용한다. 2002년에 들어서는 농촌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2003년에는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오뎀마을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 해 오뎀마을가꾸기 추진조례를 제정하고, 오뎀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004년에는 전일계약직으로 농학박사를 채용하고, 2005년에는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마을사업을 담당할 인원을 보강한다. 2006년에는 ‘마을간사제도’를 시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함께 할 도시민 귀농자를 유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하였다(진안군 내부자료).

진안의 마을만들기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정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초를 연 것이 바로 ‘마을간사제도’이다. 마을간사제도는 오뎀마을가꾸기 사업이 본격화되는 2004년부터 검토되어, 2006년 3월 본격 시행되었다. 2006년 농림부는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으로 마을사무장의 비용을, 2008년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이를 맡을 산촌매니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진안군은 마을간사를 증원하여 산촌매니저로 전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사무장과 산촌매니저의 활동이 마을에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을 마을간사와

함께 통합관리하고 있다(1). 마을간사 공개모집 서류에 명시된 마을 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① 마을발전과 관련한 기존 사업 활성화
- ②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③ 마을 사무 및 기록관리
- ④ 농산물 유통망 확충 및 마을 홍보
- ⑤ 마을 내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마을소식지 매월 1회 발간
- ⑥ 기타 본인 전문성에 기초한 타 마을만들기 지구 지원 등 (진안군 내부자료).

2008년 8월 현재 진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간사, 사무장, 산촌매니저는 모두 19명이지만(5), 2006년부터 추산하면 마을간사를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0여명 정도 된다. 마을간사는 2년 계약의 한시직 일자리이다. 마을간사가 계기가 되어 진안으로 이주하였거나, 아니면 이주한 후에 마을간사를 하게 되었을지라도 이들은 간사 졸업 후 진안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사무장을 제외한 마을 간사 중 2006년 1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간사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마을간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귀농인들이 진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 있는 만큼 마을간사 제도는 ‘지역연착륙(Soft Landing)’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동기 및 정착의 양상

1) 이주와 정착의 동기; ‘가치지향적 삶을 향해’

조사대상자들은 왜 농촌으로 이주하였을까. 본 연구뿐만 아니라 귀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귀농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귀농 동기는 귀농자들이 귀농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강대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귀농 동기를 농업과 농촌이 주는 긍정적 기능을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와 도시의 부정적 결과로 인한 회피로서 농업과 농촌 거주를 선택한 경우를 일차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농업 전망

4) 그래서 본 논문에서 마을 간사라 할 때에는 사무장도 포함된 것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5) 진안의 마을만들기 현황과 마을간사 배치 마을 (2008. 8 현재)

사업명	담당중앙부처	마을간사 배치 마을
오뎀마을가꾸기	진안군 독자사업	진안읍 외사양, 안천 노캐, 백운 동신, 성수 중길, 동향 능담학선, 부귀 방곡, 주천 무릉, 용담 와룡, 상진 신연, 마령 신동, 정철 봉학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동향 능길, 주천 무릉, 백운 동신, 진안 가막, 용담 와룡, 성수 중길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안천 상리, 용담 감동, 부귀 방곡, 상진 금지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정철 봉학, 주천 중리, 용담 방화, 안천 지사, 백운 임신, 성수 도룡
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부(농촌공사)	동향 능학선
정정테마파크사업	전라북도	안천 노캐
문화공간화사업	문화관광부	백운 원촌

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귀농한 집단과 실직이나 미취업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농한 집단,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여 귀농한 집단, 인간다운 삶이나 이상 추구를 위하여 귀농한 집단, 영농 승계나 부모님 부양과 같은 사회윤리적 전통 때문에 귀농한 집단,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귀농한 집단, 퇴직 후의 삶을 위해 귀농한 집단, 기타 귀농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귀농 동기를 살핀 강대구의 최근 논문(2007: 62-66)을 제구성한 결과, IMF직후부터 현재까지 통계 자료에 근거한 연구에서 귀농의 주요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MF 직후의 귀농 동기는 '영농'에 관한 것이었다. 농업 전망을 밝게 보고, 영농 활동이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을 안겨다 줄 거라는 기대가 주요 귀농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농업 전망' 때문에 귀농을 하였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인간다운 삶', '농촌 생활', '건강' 등의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강대구, 2007: 62-66).

이번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지난 연구에서 20명의 조사대상자의 귀농 동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닌 시골에서의 삶을 회귀하려는 집단, 둘째는 부모 부양을 위해 귀농한 집단, 마지막은 경제적인 부분에 희망을 갖고 귀농한 집단이 바로 그것이다(진양명숙, 2008: 135). 경제적 소득을 기대하고 이주한 이는 단 두 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마을간사를 대상으로 한 제면접 조사에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명료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농촌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고, 농촌에서의 삶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정한모의 연구에 적용하면 이들의 귀농 동기는 적극적인 유형에 속한다.

정한모(2003: 37-47)는 귀농 유형을 적극적인 유형과 순응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전 직업세계의 경험이 귀농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을 전자로, 그렇지 않은 유형을 후자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적극적인 유형을 띤 귀농자들은 이전 직업의 경험과 그가 처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환경운동단체 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거나, 회사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짐책기에 빠져 생활하다 새로운 나를 찾고 자신의 뜻을 실천하려 하거나, 종교에 심취해 입산 후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하려 했거나,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다녔던 사람은 적극적인 유형에 속했다. 반면 실직·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가족의 건강악화, 장남으로서의 모친 부양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귀농은 순응적인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귀농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전자가 '선택기제로서의 귀농'이라 한다면, 후자는 '대안 없는 선택'이었다. 마을간사를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7명도 적극적인 형태를 띤 귀농에 속한다. 즉 이전의 직업세계와 생활경험에서 느꼈던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은 이들이 농촌 이주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원식은 10여 년 간 아이들 독서를 지도하는 일을 했다. 그는 설부르게 아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우스워 농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농학 공부를 하면서 농촌마을에 관심을 두게 되고, 어려운 농촌을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오다 간사 모 집 공고를 보고 진안으로 이주하였다. 나경수는 화장품 대기업에 수십 년 간 근무하며, 100만평 넘는 녹차밭을 재배한 경험을 갖고 있다.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였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은 상태였다. 그는 남은 인생을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전원생활을 할까, 아니면 외국에서 지내볼까 고민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쌓아 온 자신의 경험을 썩히며 여생을 놀며 산다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간사를 모집한다는 한겨레 신문의 조그만 박스 기사를 보고 진안에 오게 되었다. 이세중

도 나경수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토목학을 전공한 후 지역의 1군업체 건설 회사에서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시골에 큰 집을 짓고, '그룹 홈(Group Home)'을 운영하며, 시골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적금도 많이 부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건설 업체의 생리와는 잘 안 맞았고 도시의 찌든 생활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떨때냐는 제안을 받고 농촌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김기철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대안 공동체 조직에 입문하여 10년간 지내 왔다.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 아이도 낳고 가정생활을 영위하였지만, 양계 축산 산업을 토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곳의 시스템에 회의를 느꼈다. 지역순환경제방식이 아닌, 사료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거부하고 싶어 다른 삶의 방식인 귀농을 택했다. 송정현은 대학 졸업 후 생명살림운동단체인 '한살림'의 실무자로 2년간 근무를 하였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대학 다니면서 이것을 구체화하였다. 고지홍은 30년간 은행에 다녔다. IMF 직전 회사에서 조기퇴직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자원하여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단학'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자 (주)단학선원 지도자로 입문하여 5년간을 지냈다. 그 후 단학의 정신을 살리면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귀농'에서 그 답을 찾았다. 불교귀농학교 14기 출신인 그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도처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2007년 봄, 장수 지인에게 들러 우연히 진안 마을간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마침 비어 있던 사무장 자리를 지원하였다. 황호승은 아이가 크고, 권이 넘으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군에 장교로 근무를 하며 생활하던 그는 도시의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 늘 싫었다. 그래서 50대에 귀농하여 정착을 하느니, 오히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애초 계획보다 일찍 농촌으로 들어왔다.

위 7명은 귀농을 위해 나름대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들의 귀농 동기에는 삶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녹아 있다. 농학의 전공, 한살림 활동, 귀농학교 입교, 공동체 입문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었다. 마을간사가 계기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이들의 진안으로의 이주는 뚜렷한 목표와 치열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에게 귀농은 실직이나, 부모부양과 같이 외부환경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들은 매우 도전적이고 적극성을 띤 귀농을 결심하였다. ⑧ 농촌의 삶의 가치 때문에 귀농을 결심했듯이, 이주 후에도 그들은 일상 속에서 농촌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여기에는 '도시적 삶'을 거부하려는 태도도 함께 담겨 있다.

제가 간사를 했던 마을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토목을 하면서 도시의 찌든 생활에 힘들었어요. 건설업은 회식도 많이 해요. 저는 술을 안 하니 재미도 없고, 정이라는 것을 못 느꼈어요. 삭막했어요. 정말 기계적인 생활이었어요. 물론 시골도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의 반복생활과 시골의 반복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진안을 다녀왔는데 벌써 벼가 익어서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새로운 거예요. 해마다 봐 왔던 건데 새롭더라고요. 농사지으신 분들도 새로운 거예요. 도시는 365일 똑같아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요(이세중).

일단 도시 생활이 저한테는 안 맞아요. 안 좋은 공기, 수많은 사람들, 천성적으로 저는 산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고. 좀 번잡한 것을 싫어해요. 조직, 형식, 격식, 그런 복잡함. 거의 모든 귀농민들이 [저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황호승).

위 7명의 대상자 중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주자는 다섯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농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또한 그들은 그것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었다.

저희는(저희 부부는) 귀농할 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 교육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교육은 시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안 다니게 하는 그런 환경. 다른 어른들은 이해 못하시는 그런 거죠(송정현).

저는 그거는(아이들 교육) 걱정 안 해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독서지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대신 기회는 많이 줘야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봐야 하니까. 어떤 국어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녀석은 절대로 도시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는] 영어뿐 교육, 알잖아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학원을 열두 개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이 녀석이 생각이 없어요. 시계만 쳐다보고 다음엔 뭐 가야겠다. [그것 뿐예요](김원식).

시골이 좋아요. 저희 아이들 보면 도시 아이들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착하고, 시골은 조용하고 성격이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 도시에서는 눈병, 아토피도 많고, 이어폰 소리로 크게 해야 하잖아요. 시골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좋고 멋있어요. 아이들 뛰어 놀아도 시끄럽다 소리도 안하시고, 설명 시끄럽더라도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이세중).

우리 애가 제일 잘 적응해서 도시에 나가서 못 살겠다 말할 정도로 우리 애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이나 친구들 생활 자체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제 딸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도시만 나가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웃음] 암튼 [제 딸이] 행복해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펜잡을 정도로 애가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황호승).

물론 모든 귀농자들이 자녀 교육에 위 사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극단적으로 오선영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귀농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양형기 역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 학교 교육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토로하였다.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그런 회사가 시골에 오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수도 “시골의 아이들이 열성적이지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아”, 자기의 아이가 그에게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부모 부양이나 경제적 소득 창출이 동기가 되어 귀농을 하였더라도 대부분은 저마다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찌든 도시와 반대되는 곳’, ‘순수함’, ‘깨끗한 공기’, ‘깨끗한 먹거리’, ‘여유’, ‘자연’, ‘인심’, ‘월화의 실천’, ‘희망’, ‘편안함’, ‘저에너지의 공간’, ‘건강’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자신들이 왜 농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주된 동기가 된다. 특히 마을간사 7명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귀농 동기는 가치지향적 삶에 있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가치지향적 삶의 형태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흙을 밟고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흥익 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기도 하며, 어떤 이에게는 바쁘고 분주한 도시적 삶과 상반되

는 삶이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후 겪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가치지향적 삶을 향한 희구가 매우 강력한 귀농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태가치의 담지와 실천. ‘모나지 않고 둥글게’

귀농 동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많은 귀농자들은 자연, 깨끗한 공기나 먹거리 등 농촌의 생태적 가치에 큰 의미부여를 하였다. 특히 일부는 야마기시공동체, 한살림 등지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해 오기도 했다. 조사대상자 7명은 모두 친환경농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⁶⁾ 마을간사 7명 중 5명은 진안으로 이주한 후 농약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지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이 굳이 더 얘기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풀 베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막말로 제조제를 안 하고, 텃밭이지만 제조제 안 하고 하려니까 화학비료 안 쓰고 하려니까. 벌레 문제를 그런 거죠? (텃밭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죠. 제조제도 안 하고 화학비로도, 농약도 안 하고. 그래서 첫 해에 고추를 천 오백 포기 했는데 병들어서 다 죽었죠(황호승).

저희는 농약을 안 했어요. 고구마도 농약을 많이 해요. 시골은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했어요. [팔 때] ‘우리는 무농약입니다’라고 알렸더니 잘 팔리더라고요. (혹시 환경주의자이세요?) 그렇진 않고요. 농약을 안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제조제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환경농업대학을 다녀왔어요. 그 때 친환경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제조제 안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어요(이세중).

진안으로 이주하여 아직 농사를 짓지 않은 고지홍이나 김원식도 같은 입장이었다. 고지홍은 마을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귀농귀촌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농약, 비료, 제조제를 뿌리는 게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기다림’에 어긋나는 거라 보았다. 그런데 이는 농사짓는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에게서 기인한 거대한 유통 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학을 전공한 김원식은 기회가 되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한다. 그의 희망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농사짓는 분들은 기다릴 양은단 말예요. 심어놓고 땅 힘에 의해서 자기의 정성에 의해서 할 일을 다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다 농약치고 비료치고 제조제 뿌리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잘못했다고만 보기도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가 워낙 그 분위기로 돌아가버리니까. 도시 사람들 솔직히 슈퍼마켓에 가면 한 겨울에도 수박 사죠. 한 여름에도 굴 사먹죠. 근데 그런 이미 거대한 유통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사짓는 분들도 같이 힘들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소위 자연보호자라든가, 지구환경, 그런 활동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오십 년 전 그 정도로까지만 돌아가도 훨씬 이 세상이 살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고지홍, 귀농귀촌설명회에서).

6) 마을간사는 겸업을 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농사만은 허용이 된다. 애초 마을간사의 도입 취지가 진안예의 연작륙에 있었던 만큼, 마을간사에게 농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진안 정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사를] 기회가 되면 해 볼 거예요. 제가 처음 농사 배운 게 고추와 수박인데, 두 가지만 배우면 웬만한 농사는 다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친환경으로 바꾸려니까 어려운 거죠. 농학이 쉬운 학문은 아닌데 그런 실제적인 것과 같이 직접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빨리 됐는데, 우리나라 표준화된 친환경 농업이 없어요. '일반사람한테 친환경농업을 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표준 매뉴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도 모으고 했죠(김원식).

마을간사는 모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진안 사랑 환경농업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⁸⁾ 그런데,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며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왔던 토박이 주민에게 친환경 농사를 인식시키기란 쉽지 않다.

올해 내 마지기 안 되는 논농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잘 되어 주위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쌀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다 못 드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친환경농업을 마을분들과 같이 하려고 했으나 마을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내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는 욕심에 우렁이농법을 시작했는데 주위에 좋은 평가를 받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문철환,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15쪽).

문철환은 마을분들과 같이 친환경 쌀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런데 이에 동참한 마을 주민이 딱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주민에게 친환경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몸소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주위 분들이 칭찬해 주실 정도로” 쌀농사는 잘 되었다(위 보고서 16쪽). 만일 그가 실패하였으면, ‘주위 분들은 화를 낼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랬다. 다음은 필자가 안천면의 귀농인 모임에 참석하여 어느 한 귀농자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많은 이질감을 느끼더라고요. 같은 관행농업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농사하는 것하고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그걸 역행을 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면, [힘들어요] 같은 고추를 짓더라도 방법을 조금 틀리게 해 갖고, 이게 그 방법을 세 갖고 젊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괜찮아, 근데 거의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런 [마을 어른들은]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말해요] 첫 마디가 그거란 말예요. 그러면 다시 그 방법으로 가요.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나도 실패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속 말 안 듣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해. 지금도요. 깃털 [농사]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친환경] 길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어르신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친환경이나 좀 선진 농업, 그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상당히, [마을의] 분위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귀농인] 모임을 자주 가져야 하고, 우리끼리라도 분위기를, 내일 당장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모임을 가져서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들도 나오고, 일단 자주 만나 갖고(한신근, 안천 귀농인의 모임에서).

7) 매주 1회씩 100시간에 걸쳐 영농전문지식과 환경농업에 필요한 기본이론, 실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환경농업대학은 2008년 올해로 8기를 맞았다. 이처럼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자체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인식시키고, 친환경적 방법을 활용한 작목반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2006, 2007년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에는 마을 간사 소개, 주요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마을 간사를 해 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실려 있다. 마을간사가 1년간 했던 활동을 살펴보면, 모두 ‘환경농업대학’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마을 간사의 의식과 생각을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귀농자 한신근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고추농사를 짓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를 반대했다. 주민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지으려는 한신근은 이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귀농인들 간의 모임을 통해 그 대안을 함께 찾아보려고 했다. 진안의 마을만들기팀의 주용진은 삼 년여 기간 동안 수십 명의 마을 간사를 보아 오면서, “지나치게 생태주의 지향적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즉 귀농자의 지나친 생태지향 의식은 농촌 정착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에 관여한 사람 중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도 많았고, 지나치게 생태주의 지향적인 사람도 오래 가지 않았다. 자신의 아집이 강한 사람은 그 도그마로 인해 마찰도 많고, 포기도 빠른 편이다. 그 포기가 현명한 선택이라 표현될 수도 있지만, 농촌 정착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주용진).

농촌 주민 사회에서 농촌이주자의 지나친 생태지향적 태도는 자칫 지역 주민에게 독선과 아집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주민과 귀농자간의 반목을 낳아, 귀농자는 이 때문에 농촌 정착에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황호승은 무농약 농사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토착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고지홍은 인내를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갈등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약을 해야겠다고 하고 안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제 고집대로 하고요. 말씀 자체는 도움이 많이 되죠. 충분히 들을 말이고, 필요한 말이니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고집대로 하는 부분은 있어요(황호승).

오히려 도시 사람보다 농촌 사람이 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아요. 비닐도 함부로 태우고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분리수거를 해서 병은 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그렇게 놓았어요. 근데, 쓰레기 가지러 온 사람이 그걸 큰 비닐 봉투에 몽땅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이런 시골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는 걸 아니까,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요(고지홍).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 농약을 치지 않고 내 손으로 재배한 먹거리는 도시민을 농촌으로 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유입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7명의 마을 간사 중 반 이상이 농촌으로 이주한 까닭도 바로 이 ‘생태적’ 가치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농촌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대부분 제조제,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하는 기존 관행 농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농약 농사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생태지향적인 신념과 실천은 농촌 정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귀농자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조언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자신의 생태지향적 사고를 토착 주민에게 주입하려 할 때, 토착 주민과 귀농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생태지향형 실천이 농촌 사회에 ‘모나지 않고 둥글게’ 융화될 때야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위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3) 정착과 적응을 향한 분투;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

이 절에서는 농촌 이주자의 정착과 적응의 양상을 들여다 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시민 이주자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농촌형이란, 주민과 지역 사회를 향한 사회적 적응 기제로서의 ‘농촌형’을 말한다.

급진적 생태지향형 신념이 위협할 수 있다는 앞의 논의대로, 귀농자는 토착 주민 사회에 융화되어 살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의 특성상, 주민과의 ‘관계 맺기’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폐쇄적인 공간인데다, 텃세도 심하고, 거주 공간과 일상생활이 마을 단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익명성에 익숙한 도시생활자들은 이주 후, 분명 주민과의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명의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많은 이주자들이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몇몇은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조사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농촌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대부분의 귀농자들은 직업적, 경제적 적응보다 주민 사회와의 통합과 같은 사회적 적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⁹⁾ 특히 예비 귀농자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적인 고려를 우선시한 이는 단 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정착하려는 자세와 농촌과 농촌 사회에 맞추려는 태도를 가장 크게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당시 조사대상자 가운데 전년 후 안정된 노후 대책을 갖고 귀농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들은 생애주기 가운데 한참 일할 시기인 40대~50대의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농산물 판매, 농사법의 습득과 농기계 구입, 낮은 소득, 생계유지와 같이 농촌 생활에서 부딪히는 직업적,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경제적 측면보다, 사회적 적응을 더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사회적 적응은 곧 농촌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직업적 정착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진양명숙, 2008: 129-140).

특히 마을간사의 사회적 적응은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마을 간사를 마을에 배치한 이유는 그 마을이 지정받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마을간사는 마을사업계획의 수립, 체험프로그램의 추진, 농산물 판매 운영, 마을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은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에 실린 조영희 간사의 1월 활동내용이다.

2007년 1월

-중길지역자치회 창립총회 및 사전준비(음식준비, 초청장, 플레카드, 행사장 등)

9) 이은숙(1980)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자, 농촌에서 농촌 거주 비이동자,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환이동자 등을 조사하여 이들 세 그룹을 상호비교하는 방식으로 귀농 인구 이동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크게 객관적 적응과 주관적(심리적) 적응으로 나눈 후 객관적 적응은 다시 생태적 적응, 직업적 적응, 경제적 적응,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였다. 생태적 적응은 주거 등 생활기점 확보를, 직업적 적응은 생계 기반이 되는 직업 확보를, 경제적 적응은 저축이나 수입 등 소득의 확보를,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말한다(이은숙, 1980: 170)

- 중길지역자치회 임회원서 작성 및 받기(3개 마을 주민)
- 중길지역신문 창간호 발간 준비회의(1차)
- 중길지역신문 창간호 발간 및 배부(면장님, 각 마을별 이장님 인터뷰)
- 부귀 봉학지구 갈나무공원 준공식 참석
- 마을공동작업(꽃길 하우스대 설치 및 철쭉 심기)
- 중길지역자치회 창립총회 ‘준비위’ 모임 (2차)
- ‘마을사업에 있어 여성의 역할’ 교육 참여(농기센터)
- 팜스테이마을 활성화교육 참석-상진 금지마을
- 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자연체험+ 농사체험) 생협에 계공
- 중길지역자치회 자치규약 작성
- 농가방문 및 마을회관 방문
- CBS 노컷뉴스 인터뷰(마을신문 제작 동기 등)
- 지역환경교육 참석(지역현안 골프장, 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자치센터 주관)
- 각 마을별 회의(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관련) 참석
- 고지도 직거래장터 및 준비모임 참석 마을농산물 판매(1회)
- 집 쓰레기 수거작업(1톤 3차, 면사무소 의뢰 처리함)

마을간사는 마을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마을규약을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일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및 지역의 주민과 잦은 교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조영희는 마을소식지를 만들면서 주민과 쌓인 애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을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녀는 농촌으로 이주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는다.

마을간사 일을 하는 동안 내 흔적과 열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마을소식지가 아닐까 싶다. …… 마을신문을 만들지 않았다면 주민들 얼굴을 사진에 담을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 …… 또 신문물을 만들려면 사진 속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사진 속 인물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 마을주민들 한분 한분이 내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진다. 그리고 마을신문을 돌리다보면 집집마다의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 신문만 달랑 주고 쓸 수 없으니, 수다를 떨다보면 쉽게 다정해지고 마을에 친근감이 생긴다. 그리고 배운다.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귀농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른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분들이 바라는 마을사업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영희,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25쪽-26쪽).

그러나 위 7명의 마을간사가 현재 주민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하였다고 하여, 주민과 아무런 갈등이나 마찰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나경수는 자신에게 찾아와 공격적인 태도로 자신을 다그친 마을의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처음에 와서 한 달쯤 됐는데 마을에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이 왔어요. 나보다 열 살쯤 더 먹었을 거예요. ‘나경수씨!’ 이래서 ‘왜 그러세요’ 이랬어요. ‘도대체 우리 마을을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들으면서 머리를 굴렸죠. ‘내가 당신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랬어요. ‘그럼 뭐냐.’ 이래서 ‘나는 귀농하러 온 사람이고, 그것이 목적이야. 내가 만일 당신들을 1년이나 3년 사이에 잘 살게 해준다면 큰일 날 일이다. 군수, 면장 다 그만둬야 한다. 그런 재주 있으면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

지, 미쳤다고 여기 왔다.’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 내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닌데 그것에 기
 예 놀리던 하러던 것도 못해. 그런 것이 어떤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예의도 갖추고, 그러다가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가 혼자 자취
 하니까 그 사람이 김치도 다 갖다 줘요(나경수).

나경수뿐만 아니라 마을간사 대부분은 농촌 이주 후 주민들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오해와
 따가운 시선을 경험했다. 무슨 일을 추진하려 해도 주민들은 ‘그것 할 수 있겠어? 다른 마
 을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마을은 안 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박강현 사례). 밤늦게
 까지 불을 켜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며(김원식 사례), 마
 을간사가 교육받으러 마을을 비울 때, ‘마을일은 하지 않고 교육이나 받고 논다’며 주민은
 마을간사의 교육 참가를 ‘빈둥빈둥 노는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고지홍 사례). 주민 가운데
 에는 열악한 군의 재정을 외지에서 온 그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마을간사의 정체성에 대해 마을간사와 주민 간의 입장 차가 커 다
 양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을간사의 성공적인 정
 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제도적 문제의 해결에 앞
 서, 농촌 정서에 맞추려는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노력이란 바로 “농촌
 형”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더 나아가 마을의 특성에 부합되는, 즉 간사가 마을과 ‘궁합’이
 맞는 “마을형”¹⁰⁾일수록 마을과 간사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농촌형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에는 비단 농촌 주민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에
 게 예의를 지키며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농촌형”은 아
 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차를 운전하다가도 마을 주민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인사하는 것,
 집에 풀을 뽑는 것과 같은 아주 소소한 일상에도 자리해 있다. 이러한 일상은 소소하지만,
 자기 생활 리듬에 익숙해 있는 도시인에게 치열한 자기혁신을 요구하기도 한다.

평온하고 인자해 보이는 주민과 어울리는 집, 그리고 알맞게 꾸며놓은 주변을 확인하고 이곳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서너 번의 방문, 그 일 년 뒤,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 마
 을간사가 되어 들어왔다. 마을분들의 간사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 봄이 지나 여름이 되자 그 기
 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 당시의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제조’ 문제였
 다. 제조제는 지금 이 세상에 돌도 없는 독약 중의 하나다. …… 이런 내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근력이 쇠하는 시기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농업 유지를 위해 농약은 기특한 상품이다.
 방문자센터 주변에, 또는 심어 놓은지 1년도 되지 않는 잔디 조각에 돌아오는 풀들은 비가 오면
 무성해진다. 혼자서는 도저히 뗄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러나 어디 내 생활이 그러한가. 진득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인터넷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도 있다. 군데군데 무성한 풀들을 보는 주민들
 은 도대체 사는 놈이 집 안마당도 깨끗이 해놓지 못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것이 과장되면
 내가 잠자는 방안과 부엌, 화장실 영역까지 침범하고 만다. 시골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기특한
 젊은이이기는 하지만 천성이 게으르고 의외로 의지가 박약하여 제대로 살겠는가 하는, 아이러니

10) 마을형은 농촌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소 다른 측면도 있다. 즉 마을 사업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간사의 적성과 역량이 이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판매센터 운영이 주요 사업인 마을,
 농촌체험관광이 주요 사업인 마을, 친환경농사가 주요 사업인 마을 등 마을의 주요 사업의 내용과 그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간사는 그 마을의 주요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자신의 적성이 맞고,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다면 마을과 궁합이 잘 맞는 것이다. 또한 마을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자연지리적 특
 성, 주민사회의 구조와 주민의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간사가 마을주민에게 다가가는 데 시간이 필
 요한 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을 수 있다.

한 품평이 생기는 것이다(송하철,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99쪽-100쪽). 11)

100만원이라는 돈이 도시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시골에서는 100만원이면 살겠더라고요. 100만원
 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치분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시골에서 가치분 소득이 100만원이 드
 물어요. …… 근데 간사를 하면 주 5일 근무에, 거기다가 회의 간다고 빠져, 세미나 간다고 빠져.
 실제로 마을에 있는 시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3일을 못 있어요. 또 주로 외지에 있다 보
 니까 9시부터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밥 먹고 진안까지 오면 점심때 온다고…. 화
 요일은 일한다고 일해. 수요일은 회의 있다고 나가. 목요일에 일해, 금요일에 집에 간다고 생각하
 면 점심 먹고 일해. 그래서 주민들은 ‘요새 애들은 일주일에 3일씩 일하고 100만원씩 받아?’ 이
 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달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 박사한테 1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회의 날짜를 수요일로 바꾸자 했어요. 늦어도 월요일 9
 시에는 마을에 가 있게 하자 이거예요. 여름 같은 때는 그 전에 나가 있어야지. 사람 일 나가
 는 데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즉 마을 간사들도 자기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
 는 간사제도의 성공과 실패 요인은 99% 간사에 있다고 봐요(나경수).

시골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을에 사시던 분들은 [누가] 차타고 썩 지나가면 뒤
 에서 욕을 해요. ‘저 사람 인사도 않고 가대~’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른신 계시
 면 내려서 인사하고, 급하면 창문이라도 내려서 인사를 하고 가요. 그렇게 하니까 어른신들이 너
 무 좋아하세요. …… 시골분들은 새벽잠이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어떤 때는 네 시에 트
 렉터 소리가 나오. 그렇게 새벽잠이 없는 대신에 일찍 주무세요. 초저녁잠이 많아서. 근데 도시에
 서 오신 분들은 적응을 못하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9시, 10시에 일어나서 그 때야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있다가 오후에 마을에 좀 나오셨다가 저녁에 12시, 1시까지 늦게
 까지 텔레비전 켜놓고 있다가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골분들하고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귀농자가 쉽게 주민과 친해질 수 있는] 쉬운 노하우가 있다면, 첫째 빗자루 들고 마을길 한 번
 쓸어보시면 돼요. 마을 청소 어렵게 할 것 없어요. 빗자루 들고 한 번 쓸어드러면 그걸로 끝나요.
 [주민이] ‘와, 부지런하네’ 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시골분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7
 시쯤만 해도 부지런하다는 소리 들어요. 7시에 일어나서 동네 빗자루질 한 번 하면 동네 분들에
 게 인사하고, 그게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도시에 젖어있는 것들은 포기해야
 해요. 도시 것을 완전히 버리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문화, 마트, 금방 손에 닿는 마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제력이 있어야 해요(이세중).

이처럼 마을 주민은 자기 집에 풀이 가득한 것을 뽑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컴퓨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면서 아침 늦
 게까지 잠을 자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¹²⁾ 또 마을 일을 한다고 들어온 사람이 마을에
 는 없고 만날 돌아다니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농촌 주민의 이러한 정서 속에
 서, 마을 간사가 그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익숙해져 있던 생활 패턴을 “농촌
 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간사들은 충고한다. 마을만들기 팀의 주용진도 “마을형 인간”으로

11) 송하철의 이 사례를 나경수는 이렇게 들려주었다. “집을 빌려줘 갖고 사는데 여름에 잡초가 이틀만 안 뽑으
 면 일이 커집니다. 감당 못하죠. 간사한테 이장님이 ‘자네 풀 좀 뽑지.’ 하면 간사가 들을 때는 기분 나쁜 거
 예요. [잡을] 자네는 농부들 와서 시끄럽지. 내 집 앞에 풀을 ‘뽑으라.’ ‘말라.’ 하니까… 그래서 [그 간사가
 이장한테] 뭐라 말했냐면 ‘잡초도 생명인데 뭐 하러 뽑느냐.’고 한 거야. 이걸 어질픈 자연주의와 생명주의자
 들이 간사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즉, 송하철과 주민과의 갈등의 시작은 자기 사는 집 마당에 풀을
 뽑지 않고 놔두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농촌 주민의 정서에서 시작되었다.

12) 김원식은 밤에 불을 켜고 컴퓨터를 하는 이유는 낮에는 이런저런 서류를 만들 시간이 없으니, 결국 밤에 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이를 하나하나 이해시키는
 과정 없이 맞바로 부딪혔다고 하면 상당한 마찰이 생겼을 거라고 슬퍼했다.

보편타당한 상식에 기초하면서, 건전한 사람이 오래 가고 마을에서도 인정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농촌 정착 방법에 정답은 없다, 누가 정답을 결코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더구나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답을 굳이 말한다던 자각된 개인의 유연한 연대이다”라고 말했다¹³⁾.

진안군은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맞추어 나가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속에서 2008년부터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귀농인이 이주하자마자 땅을 사고, 집부터 지으면서, 성급하게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안군은 빈 집을 임대해 귀농하려는 사람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게 한 후 정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을 모든 면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요컨대 조사대상자들은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농촌형은 곧 사회적 적응 기제이다.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정서에 맞는 생활 리듬을 몸에 익히고, 토착 주민과 교류하면서 지역 사회에 통합될 때만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귀농자, ‘농사꾼에서 농촌의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를 보면 향후 농촌에 정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농촌에 이주하면 어떤 업종에 종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7.6%가 전문직에, 14.6%가 농림어업에, 30.8%는 경제활동을 안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겠다는 비율은 2005년에 비해 6.1% 감소했다. 그렇다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들을 귀농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필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을 ‘도시민 이주자’, ‘귀농자’, ‘귀촌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혼용해 왔다. 사실 귀농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개념은 없다. 하지만 현재 귀농 개념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파악되지 않는다. J턴, I턴라는 말처럼, 귀농은 ‘고향으로의 회귀’에서 확대된 개념이다.¹⁴⁾

귀농 개념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귀촌’이다. 농촌에 이주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을 귀농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귀촌과 귀농을 따로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요약 비교한 것이다. 현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농인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대구, 2006: 26).

13) 필자는 마을만들기팀의 주용진 박사가 진안군 위크숍(2007.9)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진안군 마을간사제도-과제와 향후전망’라는 제목의 PPT 자료를 훑어보았더니, 맨 마지막 장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었다.

14) 귀농자의 귀농 경로에 따라, 귀농 유형을 U-turn, J-turn, I-turn으로 구분할 수 있다. U-turn은 ‘농촌→도시→고향농촌’을, J-turn은 ‘농촌→도시→타향농촌’을, I-turn은 ‘도시→농촌’을 의미한다. 도시민 농촌 이주자라고 함은 I-turn 귀농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표 1> 귀농인에 대한 정의비교

구분	조남현 (1980)	조남현 (1988)	한규석 (1997)	박병원 (1998)	이정관 (1998)	이동하 (1998)	김형용 (1998)	농촌 진흥청 (1998)	이병철 (1999)	김주연 (1999)	남성덕 (2000)	서규선 (2000)	김성수 외 (2009)
과거 농촌이주 전제	×	×	×	○	○	×	△	△	×	△	×	△	△
과거 농업영위 전제	×	×	○	×	△	×	△	×	×	×	×	×	×
현재 농촌이주 요구	○	○	×	○	○	○	○	○	?	○	○	○	○
현재 농업영위 요구	×	×	○	○	○	○	○	×	○	○	×	×	×

○: 있음, △: 있는 경우도 있음, ×: 없음, ?: 불분명(강대구, 2006: 26)

생태농업을 지향하는 귀농운동본부의 ‘귀농’은 농업 영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흙으로, 고향으로, 농촌으로 돌아가 땅을 갈고 거름을 내어 씨를 뿌리는” 삶을 지향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www.refarm.org). 강대구도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농자’와 구분하여 ‘귀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종사 일수와 경지규모,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촌자들의 상당 부분은 귀농자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귀농자로 넓게 규정하여도 무난하다(강대구, 2006: 28). 고성준 역시 거주를 목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업을 부업 수준으로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촌으로 보고, 귀촌이기는 하나 일정 정도의 농업 영위를 전제로 한다면 귀농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고성준, 2007: 39).

그러나 유정규는 귀촌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귀농을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정부의 ‘산업적’ 측면의 귀농정책과 귀농운동본부의 ‘생태환경적’ 측면의 귀농운동 모두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귀농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규모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정책의 기본 이념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귀농지원정책을 실행자 해소책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운동본부가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 귀농 개념을 ‘농사를 짓는 것’에 국한하는 것은 귀농운동본부의 실천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산업적 차원에서,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귀농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귀촌하는 것까지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유정규, 1998: 25-26).

진안군 내부 자료를 보면 ‘귀농1번지’, ‘귀농귀촌의 선진지’라는 정책 슬로건과 함께 ‘귀농귀촌정책’에 관한 다양한 사업명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진안군 역시 귀촌을 귀농과 같은 범주에 넣어 정책을 펴 나가려 한다. 오히려 진안은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자보다, 농촌에서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려는 귀촌자를 더 반겨하는 듯했다. 필자는 귀농귀촌설명회에서 이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이에 관해 마을만들기팀의 주용진은 현실적으로 진안에 부족한 인력은 농업후계자가 아닌, 농촌의 외연을 확대할 인력이라는 것이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이미 90% 이상 현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사짓겠다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환영하겠어요. 우리끼리 가볍게 하는 이야기인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또는 몇 몇 십대를 거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 많을지, 그죠? 농사해가지고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 도시에서 회사 다니면서 컴퓨터 스킬이 아주 좋은 분들은 시골에 와서 컴퓨터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이발소 하는 분들은 와서 이발소 하면 되고, 목욕탕 하시

는 분들은 목욕탕 하시던 되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공존하고 섞여들고, 또 기존 주민들과 경계되지 않는 분들의 범위에서 자기 영역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을 만들기 및 도시민 유치정책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지홍, 귀농귀촌설명회에서).

진안 현실이 농지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농지 구입 자체가 힘들고 정책적으로 주민들과 좁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농촌에 부족한 인력은 농업후계자보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연을 넓히며 행정 이외에 지역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민간 영역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 때문이다(주용진).

진안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지닌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진안군은 도시민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동시에 농촌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려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 과제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는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일자리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말한다(김재현, 2006: 112). 마을간사제도 역시 사회적 일자리 개념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마을간사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마을일꾼'이라 하는 이유는 농사짓는 토착 주민이 하지 못한 영역의 일을 하면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을간사는 마을의 전통문화자원을 조사하고, 포토샵 등의 컴퓨터 기술을 익혀 마을소식지를 직접 만들고, 농산물 유통의 망을 확장하고,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사업 및 회계 서류를 체계화하는 등 전문 영역을 개척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진안군은 마을간사가 2년여의 계약기간을 마치는 것을 '졸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졸업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간사는 한시적인 일자리이다. 필자가 만난 몇몇은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스스로 간사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주용진은 마을간사들이 근무기간 내에 농업 자체보다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찾아, 졸업 후 현재의 전문성을 발휘해 마을에 기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주용진).

진안군은 2008년 5월경 이와 비슷한 사업 하나를 새로 추진했다. '귀농귀촌인의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 소득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생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예시된 지원분야는 농업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복지분야, 기타분야가 있다. 문화분야만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소외지역 영화 등 서비스 제공행사, 각종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전통 공예품 제작, 관광 등 기능성 지도 제작, 풍물 지도, 천문 행사 진행, 인터넷 소셜 연계, 각종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구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진안군 내부 자료). 이 사업을 통해 진안군은 귀농귀촌인을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모를 했더니 5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일본말을 가르치겠다, 산촌유학을 해보겠다, 벼룩시장을 운영하겠다, 휴전축을 한 번 보급해보겠다, 전원주택 관심있으니까요. 또 전통술, 가양주라고 하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술만드는 법, 그걸 한 번 가르쳐보겠다, 그런 식의 좋은 아

이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만 해도 말하자면 재산을 얻어낸 것이다.(고지홍, 귀농귀촌설명회에서).

진안군 귀농귀촌인 통계조사에서도 진안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가운데 45%가 넘는 비율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20명의 심층면접 자료에서도 귀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 대부분은 농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마을간사만 보더라도 그들은 농촌에서의 삶이 반드시 농사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처음 귀농을 꿈꾸었을 때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사 이외에도 다른 일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귀농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간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다문화 가정, 아동문제, 노인 복지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조영희,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23쪽).

마을간사를 졸업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도농교류센터와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실무자로, 어떤 이는 숲해설가로, 심지어 어떤 이는 거주지인 진안을 옮기지 않고 전주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도 있었다.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면 마을간사는 귀촌의 유형에 속하지만, 귀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귀농이라 한다면 마을간사는 귀농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귀농귀촌은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약하면 마을간사뿐만 아니라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 도시인은 점차 농업노동력으로서가 아닌 농촌 사회를 활성화하는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도시인들이 자연, 환경, 건강, 어메니티 등 도시가 잃어버린 기능을 간직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3). 그리고 농촌의 지자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 교육, 복지, 공공의 일자리 등에 전문성을 갖춘 도시민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과 농촌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 이 두 시선 안에는 곧 도시민 농촌 이주의 성격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점차 농업노동력 확보 개념으로서의 농촌 이주보다는 농촌이 지닌 다면적 기능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 개념으로서의 농촌 이주가 점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5. 연구 요약 및 연구의 한계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문구는 이번 진안의 마을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 슬로건이다. 여기에는 귀농귀촌인력을 진안으로 유입시켜, 진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진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안 행정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 필자는 귀농귀촌인에 속하는 마을간사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젊은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동안의 귀농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에 기반한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이라는 인류학적 질적 접근을 통해 농촌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소상히 들여보고,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둘러싼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 조사 사례인 진안의 마을간사제도는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및 도시민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의 산물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진안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옴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자의 정착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필자는 이 마을간사들을 도시민 농촌 이주자로 보고, 이들의 이주의 동기과 정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이들의 이전 직업세계의 경험과 그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왜 농촌으로 이주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전환을 위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하였으며, 나름대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일부는 이미 진안으로 이주하기 전 한살림, 귀농학교, 대안 공동체를 경험하며 가치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노력해 왔다. 특히 ‘생태적 가치’는 마을간사들이 농촌에 부여한 다양한 가치 중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모두들 환경농업대학 교육을 이수하면서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 체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급진적이고 지나친 생태지향형 의식은 관행 농법에 익숙해 있는 토착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이것이 자칫 마을간사와 주민 사이에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태지향형 신념과 실천이 모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융화될 때야 농촌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도 담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주민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의 과정으로 점철된다. 거주 공간이나 일상생활이 마을 공동체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 이주자들은 토착 주민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의명성에 익숙한 도시생활자들은 이주 후 주민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이들이 주민과 절친하거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그들은 이주하기 전부터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농촌형이란 지역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을 향한 사회적 적응 기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을주민과 대면하는 일이 주 업무인 마을간사의 특성상 사회적 적응은 마을간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간사직은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간사의 개념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제도적 문제의 해결에 앞서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개인의 노력은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이는 비단 농촌의 정서를 이해하고, 주민에게 예의를 지키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리듬에서도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맞추어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정착하려는 사회적 적응 기제로서의 농촌형은 도시민 농촌 이주자의 정착과 적응을 향한 치열한 자기 혁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귀농자의 개념이 ‘농사짓는 사람’에서 농촌의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진안의 귀농귀촌정책도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점점 농촌이 지닌 다면적 기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이제 농촌 이주자는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사람에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북 진안의 마을간사 사례를 중심으로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글은 농촌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필자는 어느 귀농인의 모임에서 그들이 자신을 귀향인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농촌 이주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서이다. 그렇다면 토착 주민과 고향인 진안으로 다시 돌아간 귀농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진안으로 들어온 젊은 이주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마을간사들이 들려준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과 모습들이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마을간사 및 농촌 이주자의 유입으로 그 마을에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특히 진안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진안은 산간고원지대여서 농사를 지을 유희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진안으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너른 평야를 지닌 농촌보다 산과 숲을 지닌 진안에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즉 농사짓지 않으려는 귀촌자가 농사지으려는 귀농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각 마을이 처한 주민사회의 구조, 주민의 정서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과정은 필자의 다음 과제로 남겨 두겠다.

[참고 문헌]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 농업교육학회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 한국농업교육학회

고성준, 2007,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구본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책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승규, 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농민과 사회 17,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김동근, 1998, 농업정책방향과 귀농대책, 농촌회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세미나 자료, 전국귀농운동본부

김재현, 2006, 농촌의 사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진안군 마을간사 연합동맹보고회 및 강연회. 2006.12.27

김주현, 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한국축산경영학회

농림부(정지웅 외),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용역보고서

박공주, 2005, 실버농업인의 농촌정착과정, 농촌자원과 생활, 005년 여름호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귀농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의 외,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 특성 분석, 산업개발연구 6,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서규선, 박덕병, 1997, U턴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농총 5권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사회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나타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양명숙, 2008, “귀농의 성격과 의미: 전북 진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2008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 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 외), 20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 외), 2007,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지편 방안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정책개발담당, 2006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진안군마을간사협의회, 2007 마을간사 연간활동 보고서

진안군 내부자료